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20주에 즈음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재로동포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나날 이들은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조국통일 3대현장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국가선물관,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 《우리에게는 수령복이 있다》

어버이수령님 서거 20주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은 신에 있는 김정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는 단장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행은 국가선물관에 도착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절세위인들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뜨거운 지성이 어린 국가선물관에 찾아오신 동포여러분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인사하는 녀성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대표단일행은 숨엄한 마음으로 국가선물관에 들어섰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조선 민족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재로동포대표단의 조국방문기

행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신 총서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옥돌공에 《새쌍둥이》와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곰돌조각공에 《홍부와 놀부》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단장선생은 호랑이가 지구의 미국땅을 타고왔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후련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정말 지극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진렬된 선물들을 돌아보던 일행은 《자기차그릇일식》과 라진병풍 《십이장생도》를 비롯하여 남조선 전 《대통령》들이 절세위인들께 올린 선물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전시된 선물들만 봐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시된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아보며

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전당대에 나간 그들은 평양시내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멀리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창천거리의 고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평양의 모습은 한쪽의 그림 같았다.

태양민족의 만년채보로 높이 솟은 국가선물관에 대한 참관을 마치고 떠나는 이들의 가슴가슴은 온 겨레가 끝없이 흠모하는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궁지로 부풀어올랐다.

다. 기념이 되게 우리 로친과 사진을 찍고싶습니다.》

단장선생의 말에 부인도 한마디 하였다.

《바늘가네 실 따라간다고 령감따라 여기 민속공원에 와보니 놀랍기 그지없어요. 돌아가면 우리 손주 녀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로친네, 사진찍을 때 〈김치〉하고 소리쳐야 해.》

단장선생의 말에 줄줄게 웃으며 일행은 여러 력사유적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근 2백정보나 되는 평양민속공원은 력사종합교양구, 력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 민속놀이구, 백두산 및 금강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 력사유적들을 돌아본 일행은 5세기말에 세웠다는 8각나무탑인 금강사탑에 올



국 가 선 물 관 에 서

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여기에서 본 모든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여 고구려의 위용을 전하는 광개토왕릉비도 제주민가,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보면서, 경주 황룡사 9층탑이며 석가탑과 다보탑, 첨성대며 석굴암과 같은 유적들이 실물과 똑같이 놓여있는것을 보면서 일행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가 집대성되어있는 평양민속공원은 조선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재부라고 말하였다.

조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면서 단장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에 여러번 왔었지만 올 때마다 매년 새롭게 느껴 집니다. 이번에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느낀것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건설하고 창조하였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돌아가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살겠습니다. 정말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본사기자 최 대 성



평 양 민 속 공 원 에 서

## 하늘에선 폭양, 땅우엔 시원한 물보라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요즘 인민의 대중물놀이봉사지인 문수물놀이장이 사람들을 뿔뿔히 흥분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름철기온이 점점 높아져 낮기온이 섭씨 30℃이상을 웃도는 지금 사람들이 인사를처럼 오가는 말이 있다.

《문수물놀이장에 갑시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 솟구치는 파도, 시원한 덕수, 특색있는 물미끄럼대들... 생 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 나날 문수물놀이장은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았다.

이곳 물놀이장의 현영식직장은 《지나해 가을에 준

퍼드는 사람들, 야외체육장에서 떠들썩한 응원속에 모래터배구를 하는 사람들... 실내물놀이장도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의 방대한 면적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소리로 가득 차있는듯하다.

조약대에서 기교를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청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영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물미끄럼대에서 지켜내리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치는 사람들로 하여 물놀이장은 떠들썩하다.

하늘에서는 삼복의 폭양이 내리쬐어도 휘날리는 물보라속에 더위를 모르는 평양의 여름풍경이다.

본사기자 홍 범 식

### 문 수 물 놀 이 장 에 서

리기도 하는것은 여름철에만 맛볼수 있는 생활의 짜릿한 단맛이다.

평양시민들뿐이 아니다. 출장이나 나들이온 지방사람들도 평양에 왔다가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지 않으면 일생에 한이 된다며 앞을 다투어 물놀이장을 찾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이 준공된 때로부터 반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갔다.

이 나날 문수물놀이장은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았다.

이곳 물놀이장의 현영식직장은 《지나해 가을에 준

퍼드는 사람들, 야외체육장에서 떠들썩한 응원속에 모래터배구를 하는 사람들... 실내물놀이장도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의 방대한 면적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소리로 가득 차있는듯하다.

조약대에서 기교를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청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영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물미끄럼대에서 지켜내리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치는 사람들로 하여 물놀이장은 떠들썩하다.

하늘에서는 삼복의 폭양이 내리쬐어도 휘날리는 물보라속에 더위를 모르는 평양의 여름풍경이다.

본사기자 홍 범 식

##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물놀이장》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동하였다.

수영장안팎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들도 보이고 실내 1층에 위치한 각종 수영장시설들주위에는 부모님들을 따라와 주말을 즐기는 아동들, 청소년들, 청 년대학생, 친구들끼리 찻자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섭씨 30~35℃ 물에서 물놀이는 하는 노인들의 모습, 각계층 일꾼들이 휴가를 즐기는 등 다양한 모습들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3층에는 차질을 비롯하여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3~4개의 식당은 해물맛이당분점, 해당화관편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봉사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문 수 물 놀 이 장 에 대 해

설명하는 정영육안대원은 이 물놀이장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지지도에 의해 일대 신 새로운 창조물이며 9개월 공사기간에 무려 8차레나 현지지도해 주셨다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자는 이 시설물들과 김정은령도자의 세심한 현지지도의 발자취에 대해 느끼면서 이렇게 인민사관, 나라사랑에 매진하는 평도자에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나라들과 남녘의 보수언론들은 무엇때문에 해되는짓만 하는지 이들 언론들은 조선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 이 진실을 아는 길은 백마디말보다 와서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로 길 남

기 드문 물놀이장》이라고 소개해왔다.

이 시설을 안내하는 정영육안대원은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이 당의 결심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당의 결심은 곧 최고지도자의 결심이며 동시에 국가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기자는 이 시설물들과 김정은령도자의 세심한 현지지도의 발자취에 대해 느끼면서 이렇게 인민사관, 나라사랑에 매진하는 평도자에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나라들과 남녘의 보수언론들은 무엇때문에 해되는짓만 하는지 이들 언론들은 조선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 이 진실을 아는 길은 백마디말보다 와서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로 길 남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을, 추켜올리기에서 115kg을 들어 종합3위를 하여 1개의 은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하여 도합 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에 공화국선수들은 지난 3월 타이에서 진행된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청년남녀자경전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무게들을 모두 경신하였다.

김수정선수는 여자 75kg급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kg을, 김효심선수는 여자 63kg급 끌어올리기에서 2kg, 추켜올리기에서 1kg을, 림은심선수는 여자 58kg급 끌어올리기에서 4kg, 추켜올리기에서 2kg을 더 올렸다.

3달만에 이만한 무게를 경신한것은 주목할만 한것이다. 흔히 청년경기라고 하면 성인급보다 낮은급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의 기록을 경신한 선수가 나왔다는것만 보아도 경기수준은 성인급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번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성과에서 공화국선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은 류달랐다.

본사기자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 호평받는 정보기술봉사

—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 —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양시민들이 새 정보기술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술봉사를 받으려면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가라고 권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쉽게 알 수 있는 제품안내판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흥동에 위치하고있는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를 가리켜 누구나 종합적인 《정보기술제품전시장》이라고들 말한다.

그도 그럴것이 2층으로 된 이곳 정보기술교류사에는 휴대용컴퓨터, 공업용컴퓨터, 봉사용컴퓨터, 일체식컴퓨터와 같은 각종 컴퓨터제품과 망판전제품, 인쇄기, 수자식활형기, 기억매체, 케를을 비롯한 첨단정보기술제품들, 여러가지 규격의 액정TV, 팽동기, 세탁기, 전압안정기, 유황중폭기, 태양열축전지, 무정전전원장치 등 가정용전기전자제품들이 들어차 백화점을 뽐나게 한다.

흔히 이런 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제품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품의 성능이 어떤지 잘 몰라 여기저기에 물어보게 된다.

하지만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곳 교류사에서 들어서면 다양한 정보기술제품들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해주는 안내판부터 눈에 띈다. 그것을 보

### 다양한 정보기술봉사를 받고들여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 오면 필요한 정보기술봉사를 무엇이든 다 받을수 있어 좋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이곳 교류사에서는 기관,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 정보기술제품, 가정용전기전자제품을 도입하거나 사용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 때에 해결해주어 호평이 자자하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정보기술대응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컴퓨터체계프로그래밍, 각종 구동프로그램검색 및 설치, 비루스검사, 워전프로그래밍과 같은 프로그래밍봉사와 정보체계구축, 정보기술제품사용방법제공과 같은 기술자문봉사, 컴퓨터, 액정TV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제품주문봉사, 인쇄기관관련기술제공과 관련한 봉사, 사진 및 문서인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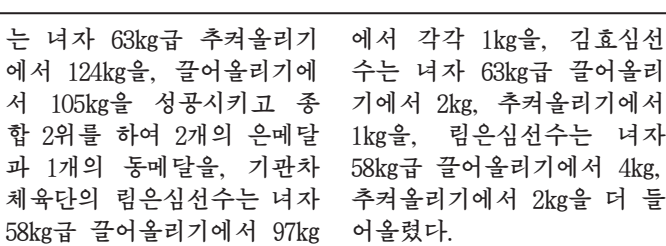
특히 이곳 교류사에서 제공하는 최첨단정보기술제품, 업무설계도구 및 흐름관리체계와 같은 다양한 기업경영정보체계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큰 관심을 받고있다.

오늘 적지 않은 기관,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 첨단정보기술제품들과 가정용전기전자제품들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불편없이 사용하고있는데는 이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있는것이다.

주인선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 사장은 말한다.

《첨단정보기술제품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현실은 그에 맞게 정보기술봉사를 따라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기관,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 정보기술제품, 가정용전기전자제품의 도입과 사용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정보기술봉사지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

본사기자 김 해 성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조선의 력기기술을 배우고싶다》

을, 추켜올리기에서 115kg을 들어 종합3위를 하여 1개의 은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하여 도합 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에 공화국선수들은 지난 3월 타이에서 진행된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청년남녀자경전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무게들을 모두 경신하였다.

김수정선수는 여자 75kg급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kg을, 김효심선수는 여자 63kg급 끌어올리기에서 2kg, 추켜올리기에서 1kg을, 림은심선수는 여자 58kg급 끌어올리기에서 4kg, 추켜올리기에서 2kg을 더 올렸다.

3달만에 이만한 무게를 경신한것은 주목할만 한것이다. 흔히 청년경기라고 하면 성인급보다 낮은급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의 기록을 경신한 선수가 나왔다는것만 보아도 경기수준은 성인급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번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성과에서 공화국선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은 류달랐다.

본사기자